

아파트 모텔하우스의 '진화'

전시·공연·결혼 피로연 장소로 '피오레' 등 문화공간 자리매김

단순한 견본주택 전시장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모텔 하우스'가 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주택 상품 판매에 주력해왔던 종전 개념에서 벗어나 모텔하우스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용 갤러리를 마련하고, 모텔하우스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상설 문화·예술공간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신세계벽화점 건너편에 자리한 대주건설의 '피오레 하우스 갤러리'는 본격 전시관을 갖춘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케이스.

지상 4층 규모로 마련된 '피오레 하우스 갤러리' 1층 100㎡ 공간은 전시장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 개최도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현재 갤러리에서는 강진 청자문화제와 청자를 알리기 위한 '강진 청자문화 옛보기'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시에는 강진에서 청자를 굽고 있는 업체들과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선보이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김정관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작가들을 위해 전시장을 무료대관하는 한편 계약자·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완지구에 문을 연 영무 예대를 주택전시관도 지역 문화마케팅을 도입할 방침이다. 영무측은 이 달말 작가 장현우, 정상섭, 박준선, 이용철



'피오레 하우스 갤러리'를 찾은 주민들이 '강진 청자문화 옛보기'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씨 등이 참가하는 지역 작가 공동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입주에 맞춰 지역 작가들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을 매주 2차례 개최하는 등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변모를 추진하는 모텔하우스도 등장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진흥더블파크 모텔하우스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무료 요가 교실을 열었다. 또 아파트 계약자와 주민들을 위해 돌잔치, 백일잔치, 결혼 피로연 장소로 모텔하우스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

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지역밀착형 문화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는 곳도 많다.

현진 에버빌 주택전시관은 최근 지역 주민들과 임신부들을 위한 '아가사랑 태교음악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서구 금호동 상용예가 모텔하우스에서는 올초 동양화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농성동 코오롱 하늘재 모텔하우스는 광주전남 사진동호회 '비로초' 회원전을 열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김미숙 한국무용단 미국 나들이

조선대학교 김미숙 교수가 이끄는 김미숙 한국무용단이 3~17일까지 미국을 방문, 공연을 갖는다.

2004년, 2006년에 이은 이번 3번째 미국 방문은 미국 텍사스주 킬린시 한국인 여성들로 구성된 킬린자매회(회장 이화자)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를 비롯, 공진희(무용과 강사)씨, 무용과 학생 등 총 19명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흥겨

운 사물놀이와 화의 물질을 재현한 학춤, 태평무, 부채춤, 입춤, 이매방류 살풀이, 장고춤 등을 선보인다.

3일에는 달라스에서 공연을 갖으며 이후 킬린(4일)을 거쳐, 7일에는 광주시의 자매도시인 샌안토니오 무대에 선다. 그밖에 코퍼스 크리스티(9일), 어스틴(10일)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학춤'



러시아 민속음악 연주팀 '루시'



여성 3인조 그룹 '미에르바'

세계 공연예술로의 초대

15일까지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프리지 공연

'세계 각국의 공연을 즐기세요.'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심 곳곳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오픈 무대가 마련된다.

16일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되는 제2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정식 개막에 앞서 한국을 비롯한 7개국 11개팀의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프리지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팀으로는 4인조 남성 그룹 '모투', 한국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선두 주자 '소울 버스터즈', 화려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타악그룹 '드럼캣', '아트어브랩' 등이 무대에 선다.

또 차랑고 등 민속악기를 연주하는 페루의 '트리부', 전자 현악기를 연주하는 여성 3인조 그룹인 러시아의 '미에르바', 중국 기예팀 '우쑤우란텐', 에콰도르 연주팀 '인디안 스피릿', 소리를 활용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독일의 퍼포먼스 그룹 '스타피큐렌', 필리핀의 코믹 아크로바트팀 '판타스타', 러시아 민속음악 연주팀 '루시' 등 해외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유스퀘어, 광주생암공원, 5·18 기념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대 후문, 남구 푸른길 공연 등에서 열린다. 문의 062-521-32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망

'2007 신(新) 새마을 운동전' 13일까지 무등 갤러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광주 도시의 미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작품으로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2007 신(新) 새마을 운동전'이 13일까지 무등 갤러리 신관에서 열린다. 참여 작가는 강요상, 김중국, 김운주, 김현돈, 배현철, 이병선, 이호동, 조선아, 한미경씨. 김현돈씨는 '신 새마을 운동'을 통해 '러브호텔'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김중국씨는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어



김중국 작 '다시-오르다'

우려진 광주의 미래상을 '다시-오르다'에 담았다.문의 062-236-25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학인 초청 전남 기행

8~9일 도청·강진·영암일대

한국문인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조수용)는 다음달 8~9일 이틀 동안 전남도청과 강진·영암·화순 일대에서 '제1회 전국 문학인 초청 전남 기행'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첫째 날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종명지(화순 동북)에서 본 김삿갓의 시와 삶'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둘째 날은 ▲영암 한옥시범마을, 왕인박사 유적지 ▲강진 청자도요지, 다산초당, 영랑생가 ▲화순 종명지, 초본지 등을 둘러본다. 문의 062-363-9956.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www.ori27.com



침단본점 (062) 973-5279 롯데마트 주저장 건너편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진북향방오리백숙



오리불고기



오리부제침



떡밥

상무직영점 (062) 372-5279 신천 헬팁아파트 옆

봉선직영점 (062) 674-5279 남구청앞 솔미렉스 1F 뒷편



movies Happy Time 영화안니

메가박스 Megabox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금,토(2일) 심야상영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상무점

무등극장 Mudeung극장

제일시네마 Jeil Cinema